

영산재 유럽인들이 '갈채'

법현 스님 스웨덴·독일 등 순회 11일 제주서 선무 '탐라의 빛' 공연

소가모니부처님이 인도의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모습을 음악법패와 무용(작법), 미술(장엄)의 종합예술로 승화시킨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공연이 해외 무대에서 연이어 열린다.

동국대 교수이자 영산재 이수자인 법현 스님이 그 주인공이다. 스님은 지난해에도 수차례 미국과 프랑스 등지에서 영산재를 선보였으며, 올해에도 다섯차례 해외공연으로 영산재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세계인의 가슴에 심어주었다.

스님은 지난 7월 2일 오스트리아의 라디오 오스트리아 인터내셔널 공연장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7월 6

일~8일에는 벨기에 주베렘 국제 민속 축제에서, 7월 23일~27일에는 스웨덴 라트빅 국제 민속 축제에서 '한국의 불교음악과 불교무용'을 주제로 잇달아 공연을 가졌다. 또 7월 28일에는 일본 동경국립극장에서 초청 공연을 가졌으며, 9월 6일에는 독일 뒤셀도르프시 콘스트 팔라스트 박물관의 '세계의 제의'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우리 영산재의 아름다움을 전했다. 이 행사에는 미국, 터키, 스리랑카, 일본, 페루 등 세계 30개국 68개 제단을 만들어 각국의 다양한 제의 형식을 선보였는데, 이 행사장에 우리나라 불교 영산재의 불단을 그대

로 재현해 꾸미고, 또 유일하게 현장에서 공연을 펼쳐 갈채를 받았다. 이 영산재 불단은 2002년 1월 6일까지 콘스트 팔라스트 박물관에서 전시된다.

독일 언론은 영산재 가운데 나비춤과 바라춤 등으로 꾸며진 법현 스님의 공연을 보고 "동양의 나비가 독일인을 놀라게 했다"고 극찬했고, 5만여 명이 이르는 사람들이 영산재 공연과 영산재 불단 전시장을 관람했다고 전했다. 스님은 이번 독일 공연의 성공으로 현재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의 박물관들과 순회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스님은 내년 1월경 대만 불광사 초청 불교음악과 공연과 프랑스 라디오 방송국 초청 공연, 그리고 내년 7월경 이탈리아 등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다.

법현 스님은 "국내 공연에만 치우



○지난 9월 6일 독일 뒤셀도르프 콘스트 팔라스트박물관 공연 장면. 독일 언론은 나비춤과 바라춤으로 꾸며진 영산재 공연을 극찬했다.

치지 않고, 전 세계에 한국의 미를 전할 수 있도록 예술적 차원, 포교적 차원에서 무대화 작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현 스님은 우리의 영산재를 세계로 알리는 작업 외에도 제주의 민속과 불교 무용을 집약한 선무 '탐라의 빛'을 11일 제주 민속타운 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이 공연은 제주시가 국제도시로서의 면모에 걸맞는 우리 문화상품을 개발하겠다는 뜻을 세우고 스님에게 의뢰, 창작한 것이다. 첫 공연 후 6개월간 상설 공연에 들어간다.

이은자 기자 eeje@buddhaha.com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새벽에 잠이 깨어 빛에 올랐다. 흰하게 밝아오는 하늘을 배경으로 북한산 연봉이 높스럽게 펼쳐 내린 풍경을 보는 것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삼각산이라는 이름을 만든 세 봉우리,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에 섰음에 다가온다.

눈앞에 펼쳐진 북한산 연봉의 비경을 감상하다가 문득 어젯밤 읽은 이원섭 시인의 시가 생각났다. 이 노시인은 당시(唐詩), 노자, 장자, 논어, 선서를 비롯하여 불교대전 등 많은 고전을 번역하였는데, 최근 40여 년 만에 새시집 <내가 밝은 가래침>을 펴냈다. 제목이 재미있는데, <머리맡>에 시집명을 그렇게 지은 심사가 잘 드러나 있다. "이제 와서 새삼스레 무슨 시집이냐고 나무라는 이가 있다면, 이것들은 나의 가래침이라고 변호하고 싶다. 사십 년쯤이나 시를 외면하고 살았는데도, 그 동안에도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이나 생각은 마음 속에 앙금으로 남아 침전되어 있다가, 오늘 그 불순물들이 가래로 울고되어 치고 올라와 마침내 욕구멍에 엉겨붙기에 이르렀으니, 나로서야 이 역경과 맥스꺼운 것을 입 밖으로 뱉어내는 것 외

에 무슨 방도가 있었겠는가?" 그는 사십 년 만에 뱉어 놓은 시구들을 가래침이라 불렀지만, 실제로는 사리처럼 단단하고 영롱한 시물이다. 그 중에서 '집을 비워 놓고는'이라는 시가 영 뇌리에서 가시질 않아 새벽부터 나를 깨운 것인가.

꿈에 인수봉을 찾았더니 누군가를 만나러 갔다 했다. 또 백운대를 찾았더니 조금 전에 나갔다 했다. 내친김에 만경대에 둘러보았으나 그도 마찬가지로 했다.

나는 괴팍한 생각이 들어 문수봉을 찾아가 털어놓았다. 어디를 싸들어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집을 비워 놓고는.

그러자 문수봉이 정색하고 물었다. 그럼 선생은 지금 집에 있습니까. 아니면 집을 비우고 있습니까. 놀라서 깨어보니 새벽 네시였다.

가솔한 봉우리들을 닮았 게 아니라 가솔한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문수봉의 대답은 장군축처럼 우리들의 어깨를 내리친다. 과연 새벽 네시에 시인의 잠을 깨울만 하다. 그래서 이 시를 읽고 마음에 걸려 나도 새벽에 눈을 뜨고 산에 올라 북한산과 마주선 것인가? 저 앞에 우뚝 선 문수봉이 내게도 뭐라고 말하는 것 같더니 이내 입을 다문다. 허깨비에 그만 끌려 다니고 이제 자신의 주인 노릇 좀 제대로 해보라는 것인가.

■문학평론가



○한복작 '고집명도'

불교조각의 미래본다

제7회 한국전 불문화재조각회 조각전이 10월 10~16일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전통 조각의 맥을 오늘에 잇는 전통 불상 조각과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구상조각의 불상 조각이 다수 선보인다.

'고집명도'를 주제로 석굴에 암각하면 불상조각 기법을 뽐내며 도입해 성불의 과정을 표현한 한복석씨의 작품이나, 두손으로 지구를 받치고 있는 형상위에 새들이 앉아 노래하는 송근영씨의 작품 '동체대비', 솟대와 목 없는 불상으로 표현한 노정웅씨의 '인내자' 등 기존 불상조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이은자 기자

비엔날레 2편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전통 공예로 보는 자연숨결

2001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5일~21일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공예비엔날레는 '자연의 숨결'을 주제로 우리나라 작가를 비롯한 세계적인 작가 100여명을 초청하는 국제초대작가전을 비롯해 공예산업의 미래를 열어갈 산업공예전, 한국공예의 전통과 혼을 오늘에 이어가기 위한 전통공예전 등을 마련한다. 또한 '공예속의 자연성'을 주제로 국내공예사가, 이론가, 비평가 등이 참여하는 학술심포지움, 문화예술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능산리 절터는 고분 지키는 절"

부여박물관 발굴보고서

최근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부여 능산리 절터(434호)의 발굴보고서가 국립부여박물관에서 나왔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4차에 걸친 발굴 성과를 담은 보고서 <능사(陵寺)>는 '능을 지키는 절'이란 제목에서부터 일부 이견이 제기됐던 이 유적지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보고서는 사비시대(538~660년) 집단 왕릉묘역인 능산리 절터와 부여 나성 사이를 흐르는 계곡에 조성된 능산리 유적을 능산리 고분군을 위한 사찰로 보고 있다.

즉 중문과 목탑 금당, 강당을 남북 일직선상에 배치한 이른바 1탑1금당의 전형적인 백제 가람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함께 출토된 불상의 공배와 흙으로 빚은 불상의 머리, 사리감 등 불교 유물이 많이 확인되고 있음도 이곳이 절터라는 유력한 증거다.

'동과 서, 남쪽에 회랑이 둘러져 있는 점은 그 동안의 백제 사찰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가람 배치다. 특히 남쪽 회랑은 기단이 동서 회랑과 만나는 지점에서 끝나지 않고 그 바깥쪽 배수로까지 이어진다. 이 때문에 이 유적지가 백제 왕실의 신궁터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

전주 세계서예비엔날레

문자예술의 아름다움 감상

2001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6일~11일 5일까지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을 비롯한 전주 일원에서 진행된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선(線)을 넘어 함(含)으로'를 주제로 세계 20개국 문자예술의 아름다움과 특색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다. 본 전시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20개국의 작가 76명이 글자의 모양이 지닌 조형의 미학을 보여준다. 특별전으로 세계 각국의 문자와 문양을 만날 수 있는 '국제문자각전'과 고대 각국 문자의 사진자료와 이를 모티브로 국내 작가들이 만든 서예 작품이 전시되는 '세계문자서예전'이 마련된다. 이은자 기자

기도 했다

보고서는 절터가 불과 높이 많은 계곡이라는 지리적 취약성을 이겨내기 위해 건축을 자체 구조뿐 아니라 배수로 시설에 각별히 신경을 썼음을 주목하고 있다. 배수로는 동서 양 바깥쪽을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지하를 관통하고 있는 배수로도 확인됐다.

1993년 출토된 백제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에 대한 과학적 분석결과, 향로는 구리와 주석을 85대 15의 비율로 합금했으며 대략 1천100도에서 녹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금동대향로의 상징성과 각 도상의 성격, 제작 배경이 되는 사상의 문제 등은 이번 보고서에서는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연극 '바리공주'

12~15일 세종문화회관

서사무가의 대표작 <바리공주 설화>가 연극으로 꾸며진다. 바리공주 설화는 '바리대기', '오구풀이', '칠공주', '무조전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지만 공통된 줄거리는 버림받은 일곱째 공주 바리가 죽음을 앞둔 아버지를 위해 저승을 찾아가 악을 구해 온다는 내용.

연극으로 꾸며지는 바리공주는 작가 우봉규의 원작을 극단 현빈대표 김일우이 12일~1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무대에 올린다. (02) 762-8846

권형진 기자 jinyj@buddhaha.com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1,400,000원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갖고 있습니다.



수분흡수와 방습기능은 일반편의 4배
무좀이나 피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30,000원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20,000원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262cm(길이)

삼베목수건은 식물성섬유와 동물성섬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류의 사각사각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 02-3270-3300 팩스: 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청 방법: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